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보도자료** | **자료배포일** | **5월 6일** | **매수** | **총 1매** |
|  |  |  |  |  |
| **디자이너 브랜드 도호(Doho), 故 도향호 수석디자이너 추모문집 수익금 전액 후원**미혼모, 이주여성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의 자립 지원 |

 

< 도호(Doho) 김영석 부사장과 한국여성재단 조형 이사장>

글로벌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 도호(Doho/㈜혜공/대표 김우종)가 지난 5월 3일 한국여성재단(이사장 조형)을 방문, 미혼모와 이주여성 등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자립 지원에 써달라며 故 도향호 수석디자이너 추모문집 판매수익금 전액을 기부하였다. DO HO 추모문집(Memorial anthology)은 故 도향호 수석디자이너의 안타까운 타계 1주기를 기념하여 지난 3월 7일에 발간되었고, ㈜혜공은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도호데이(Doho Day)로 정해 서울과 대구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진 바 있다.

**특별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으로 여성들을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**

특별한 디자인으로 여성이 자신의 삶에 주인공이 되도록 기여해온 도호(Doho)는 사회공헌을 통해서도 여성들을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. 김영석 부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“숨은 재능과 탁월한 감각으로 패션을 디자인하고 이끌어온 故 도향호 수석디자이너의 삶을 의미 있게 기리고자,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의 이름으로 해마다 지속 후원하겠다”고 밝혔다. 아울러 여성 창업컨설팅 및 일자리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.

*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“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”는 기치로 각계각층의 리더와 여성단체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며,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재단입니다.